

익도열병 긴급방제 실시

군산시농기센터, 이삭도열병 발생 차단 사전 예방 총력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이삭도열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기센터는 특히, 수량감소와 미질저하 피해를 주는 흑명나방, 이화명나방의 방제를 위해 출수 직전까지 벼 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를 당부했다. 농기센터에서 도열병에 대한 예찰 결과 도열병 포자는 지난해 보다 1주일 빠른 지난 6월 20일 경에 최초 채집됐다. 7월 이후 비오는 날이 많고 일조시간이 적어서 늦게 심은 1모작과 2모작 논에서는 익도열병 발생이 확산되고 있으며 긴급방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방제를 철저히 해야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부해안 지역으로 이화명충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열병과 함께 동시 방제를 해주어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삭도열병은 이삭이 나오기 전에 방제하면 82.8%의 높은 방제효과를 보이는 반면 이삭이 나온 후 방제는 18%의 낮은 방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삭나오기 전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익도열병 발생이 많아서 이삭

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는 논은 이삭 나오기 전에 1회 방제하고 이삭 나온 후 7일경에 2차 방제하면 99%의 방제효과를 볼 수 있어 이삭도열병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1모작 중간생종 종합방제 적기는 벼 이삭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출수 시 5일 전부터 출수 직전까지이며, 5월 25일 이양한 신동진벼를 비롯한 1모작 중간생종벼는 8월 4일부터 출수 직전까지 등록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시에는 삼자처리제와 다른 기작을 갖는 약제를 선택해 약제 내성이 생기는 것 방지할 것을 권장한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지난해 이삭이 나온 후에 잦은 강우로 이삭도열병 발생이 많았으며 비 때문에 방제하기도 어려워 군산에서만 4,591ha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외국어교육 확대 방침을 결정해 학부모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어민 스토리텔링 수업 진행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 원어민과 함께 외국어역량 교육 확대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린이 외국어교육 확대 방침을 결정해 학부모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은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강좌를 기존 2개 반에서 6개반으로 증설해 운영 폭을 3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국어 정착 전 10세 이전에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의 경험을 확대해 지역 어린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원어민 강좌에 대한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유아 6~7세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수업은 현재 토요일 유·초등 2개반으로 운영했던 것을 9월부터는 주중과 주말로 분리해 총 6개 반으로 증설해 진행한다.

주중 유아반은 매주 금요일 4시 수업을 진행하고 초등반은 매주 수요일 3시에 강의를 마련한다. 주말에는 유아반과 초등반이 각각 2시와 3시 수업으로 4개 반 수업이 개설된다. 한편 익산어린이영어도서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과 함께 원어민 스토리텔링 수업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어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게임과 만들기 등 독후 활동을 함께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표현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등반은 매주 재미있는 보드게임도 함께 한다. 이밖에도 성인반 3개반을 포함한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 11개 강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영어 회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형공원 조성

군산시 소룡동 도심속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을 수 있도록 소룡동 선형공원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룡동 선형공원은 주거지역 속의 공원으로 주변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소룡동 1399-160번지 일원에 면적 1,756㎡로 조성된 소룡동 선형공원은 벽천을 통한 친수공간과 기존 우물과 과거 소룡동 역사를 담은 기억의 벽, 라인조형이 설치된 광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자는 마을 중심의 공평가로 인한 우범지대였던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범죄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소룡동 선형공원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심도 캠페인 실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관 홍보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8월까지 '정신건강 하트 챌린지-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광고, 현수막, 마트카트(아마트, 홈플러스), 로고센터(중앙체육공원, 동산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 나오는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문안과 손가락 하트 모양을 함께 촬영하는 방식이다. 손가락 하트 사진을 홈페이지 게시판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현수막, QR코드를 통해 서식에 맞춰 업로드하면 된다. 참여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20명에게 다양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는 다음달 10일 개별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 기독교연합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상호 협조

양기관 방역수칙 이행점검

익산시의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협의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시의 익산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6일에 '코로나19 대응 공동협의회'를 열고 기독교계의 책임성을 갖춘 자율방역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확산 시에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혔던 익산시의 교계 연합의 자율방역망 활동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보강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 기독교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예매는 물론 일상 방역 생활화,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등 강화된 자율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익산시의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점검 협의회를 열고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익산시의 기독교연합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현

실적인 개선책을 공유하며 빈틈없는 '익산형 방역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등엄빠 · 청소년부모 지원 나서

익산시는 연말까지 고등엄빠, 10대 부모 등 청소년 부모들의 이동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청소년 부모의 성장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법원에 따라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3인기준 2,516,821원)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아동양육비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지 시범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부담 또는 취업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여성청소년과(859-592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공비축미 자체 전수조사 실시

익산시가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8일간 2022년 정부관리 양곡창고 수시 재고조사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올해 5월 상반기 정기재고조사 실시했으나 최근 도내 미곡 처리장에서 공공비축미 무단 유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정부양곡 재고량 관리를 위해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관리 양곡창고 재고조사는 양곡수급계획 수립, 관리과정의 착오와 부정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연회 실시한다.

이번 수시 전수조사 대상은 현재 정부관리양곡을 비축하고 있는 보관소 65개소이며 재고량은 2만3,498톤이다. 6월말 기준 익산시 창고 보관을 32%에 해당한다. 점검은 농산유통과 직원이 4개조를 이뤄 8일간에 걸쳐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이들은 보관소를 방문해 양곡대량과 실제고량 일치 확인, 정부양곡의 품위(충해·발열·변색 등), 보관창고 시설(파손·고장) 등 안전 보관 상태 전반에 걸쳐 확인한다. 한편 시는 창고주 49명을 대상으로 정부공공비축미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